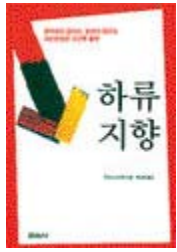


북스

Books



하류지향
우치다 타츠루 지음

배우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당당한 '신인류'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인문계 학생이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공계 학생 등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내용은 신문이나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초·중·고교생들에게까지 퍼져 있어 더 심각한 모양이다.

'하류지향'을 쓴 일본 코베여학원대학 문학부 우치다 타츠루 교수는 공부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노동 기회를 통해 사회 생활을 거부하는 '신인류'가 출현했다고 경고한다. 이들의 문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85만명을 헤아린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대변한다. 저자는 "교육과 일로부터 멀어진다"고 지적한다.

우선, 저자는 배움과 일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가 출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의외로 간단한 사실에서 그 이유를 추론한다. 저자는 선생님에게 "이것을 배우면 뭐가 좋아요?"라고 묻는 아이들에 주목한다. 이같은 질문은 아이들이 이미 소비주체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의점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 교육 역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보는 시각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만약 배워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안 배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 책가죽화와 기술의 발달로 아이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지 않는

다. 그저 "됐으니까 너는 아무 것도 하지마"라는 강요를 받을 뿐이다. 아이들은 '아무 것도 안 하기' 위해 '노력'한다.

니트족이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 역시 노동을 소비행동의 도식으로 보는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등가교환은 이뤄지지 않는다. 임금이 업무 노력과 비례하지 않고, 노력에 대한 보상은 '더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이거나 상당기간 후에 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병치된다.

저자는 교육에서 시장원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이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익힌 것 중 가장 중요한 '배우는 능력'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공부 시장원리에 맞을 수 없는 이유는 배우기 전에는 무엇을 배울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데다 "공부를 끝낸 시점이 돼야 비로소 무엇을 배웠는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오래전 이지와와 심각한 학교 문제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왕따와 학교 폭력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가 됐으며, 또 실업자들이 늘어 실업생, 이태백, 삼팔선 등의 신조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저자의 날카로운 지적을 새겨야 하는 이유다. 저자의 결론은 의미심장하다. "배움의 의미를 모르는 인간은 노동의 의미도 모른다." (열음사·1만1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니트족=영국 정부가 인구 분류에서 정의한 말로 '자의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새책

▲책의 연인='가상도시백서'를 쓴 소설가 이신조씨의 독서록. 저자는 자신과 연애를 나눈 41권의 문학·역사·철학·예술책들에 대한 단상을 담았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주간한국'에 게재했던 '이신조의 책과의 밀어'를 묶은 것이다. (이름·1만1천700원)

▲수학자들의 전쟁=한세대 이광연 수학과 교수가 미적분을 둘러싼 중세 수학자들의 논쟁을 담았다. 특히 미적분의 발명을 둘러싼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우선권 논쟁은 '결투'에 가까웠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전쟁의 내막과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프로네시스·1만3천원)

▲너 꽃 해=시인 김동태씨가 20년 동안 쓰고, 짙은 시와 사진을 모은 시집이자 야생화 화보집. 38세의 이른 나이에 직장을 나와 전국을 돌며 야생화에 매달린 시인의 발품과 맘이 175편의 시와 컬러사진 750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새벽·2만9천500원)

▲러브마크 이펙트=아이디어 회사인 '사치&사치'의 CEO 케빈 로버츠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사랑에 빠뜨리는 실전 전략"을 내놓았다. '러브마크'란 '소비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브랜드'를 뜻한다. 소비자와 제품이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실전 경험과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서문·2만3천원)

▲산은 산 물은 물(2권)=성철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정찬주씨의 장편소설이 9년만에 새롭게 재출간됐다.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검사가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수행자들을 누비며 그의 수행 역사를 간접 체험한다. 제목은 1981년 스님의 법문에서 따왔다. (열림원·각 권 1만원)

▲작가들의 우정편지=소설가 김다은씨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설명을 덧붙였다. 동요가리 주고받은 편지를 비롯해 습자생 시절의 편지, 화창시절에 쓴 편지 등 책 속 글들은 단순한 편지글을 넘어 새로운 문학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생각의나무·1만원)

▲조선기담=역사를 전공한 이한씨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낸 뜻밖의 사건들을 흥미롭게 재구성했다. 한성대학재와 방화의 유행, 후추 씨앗을 구했던 성종, 소설 때문에 반성문 쓴 선비 등 '사화기담', '왕실기담', '선비기담'으로 나뉜 19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청아출판사·1만2천원)

▲자동차의 역사=독일의 교통 전문 역사학자 쿠르트 피저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자동차의 모든 것을 썼다. '자동차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좋은 이 책은 주유소, 자동차 엠블럼, 제동 기술, 자동차 보험, 차고, 내부 디자인 등 거의 모든 관련 분야의 역사를 총망라했다. (뿌리와의파라·3만8천원)

▲뉴욕, 아트앤더시티=뉴욕에서 11년간 미술사 등을 공부하고 큐레이터로도 활동한 양은희씨가 쓴 뉴욕 미술여행 안내서. 작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고 뉴욕 지리와 이동방법, 소요 시간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뉴욕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리게 한다. (랜덤하우스·1만4천원)

바른 말글 사전

개정·증보판 출간

어문 규범에 어긋나거나 잘못 쓰이는 말, 어려운 한자말, 일본식 한자말, 서양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꾼 '바른 말글 사전'(1996)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한겨레신문 최인호 한겨레말글연구소장이 엮은 이 책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새로 생겨나거나 들어온 외래어를 가운데 바꿔 쓸 말들이 보태졌다.

엮은 이는 '다우로드'는 '내려받기', '다크서클'은 '눈그늘'로 바꿔 쓰라고 말한다. 특히 신문, 잡지, 실용문, 방송글, 공문서, 문학 등에 나오는 말과 표현 중 잘못 쓰이는 것들을 집어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철저히 따라 사전으로서 가치를 높였다. (한겨레출판·3만5천원)

스타벅스 사람들 조셉 미첼리 지음

커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스타벅스'는 전세계 42개국에서 1만4천여명의 매장을 운영, 매주 3천500만명의 고객을 맞이하는 대기업이다.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중국은 물론 반미정서가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업 중이다.

지난 1980년 시애틀의 작은 커피전문점에서 시작된 스타벅스의 성공스토리는 월스트리트저널, 비즈니스위크 매거진 등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영컨설팅업체의 연구대상 1호로 꼽힌다.

'스타벅스 사람들' 미국의 경영 전문컨설턴트인

조셉 미첼리 박사가 18개월 동안 스타벅스의 성공스토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추출해낸 스타벅스의 성장동력 분석서다.

저자가 주목하는 스타벅스의 핵심 경영전략은 '사람'이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종업원이 아닌 파트너(동업자)로 부르고 경영진의 전유물인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가까이 배분한다. 심지어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준다.

스타벅스의 차별화된 전략은 고객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대우하는 것이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미니수첩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은 물론 다시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과 상호관계를 맺는 방법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 메뉴얼이 담겨있다.

'고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라'는 색다른 즐거움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스타벅스의 전략이다.

사전 예고 없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깜짝 서비스 하기도 한다.

스타벅스의 또 다른 강점은 반대나 비판을 능동적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스타벅스 경영진들은 회사나 제품을 비판하는 고객이나 단체를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안티 스타벅스'를 '스타벅스 페인'으로 만든다.

스타벅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타벅스는 커피원료 공급업체에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보장하고 고가에 원료를 매입한다. 그러나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으려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열음출판·1만3천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스타벅스의 성장동력은 '사람'과 '포용'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역국사거리 ☎예매1544-0600

| | |
|---------------------------|------|
| M관식객 (디지탈/12세) | 최고급관 |
| 2관식객 (12세) | |
| 3관킹덤 (18세) | |
| 4관궁녀 (18세) | |
| 5관색,계 (18세) | |
| 6관히어로 (12세) / 블랙달리아 (18세) | |
| 7관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 8관더버터플라이 (15세) | |
| 9관바르게살자 (15세) | |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이얼업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무로잡은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 |
|----------------|
| 1관 블랙달리아 (18세) |
| 2관 킹덤 (18세) |
| 3관 M (15세) |
| 4관 바르게살자 (15세) |
| 5관 식객 (12세) |
| 6관 세브란스 (18세) |
| 7관 궁녀 (18세) |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음외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환도시영영화시영 *예매: www.joycoco.com/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시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

| |
|----------------------------|
| 1관 더버터플라이 (15세) |
| 2관 M (15세) / 히어로 (12세) |
| 3관 블랙달리아 (18세) / 색,계 (18세) |
| 4관 색,계 (18세) |
| 5관 궁녀 (18세) |
| 6관 바르게살자 (15세) |
| 7관 식객 (12세) / 킹덤 (18세) |
| 8관 세브란스 (18세) |
| 9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10관 식객 (12세) |

*오늘 최대 주차장 *예매입금이 생략됩니다
1588-7941
성명연결 방법
-1원or 2원 -1원

클라우드해상 (107) **절반리 상영중**

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c.com/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 |
|-------------------|
| 1관 더버터플라이 (15세) |
| 2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3관 색,계 (18세) |
| 4관 궁녀 (18세) |
| 5관 블랙달리아 (18세) |
| 6관 바르게살자 (15세) |
| 7관 식객 (12세) |

*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녹화 사무(모닝-캐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 |
|--------------------------|
| 1관 킹덤 (18세) |
| 2관 궁녀 (18세) |
| 3관 더버터플라이 (15세) |
| 4관 바르게살자 (15세) |
| 5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6관 식객 (12세) |
| 7관 히어로 (12세) |
| 8관 블랙달리아 (18세) / M (15세) |
| 9관 색,계 (18세) |

*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컴퓨터·채널을 위한 전용구비
* 관객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
|----------------------------|
| 1관 색,계 (18세) |
| 2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3관 바르게살자 (15세) |
| 4관 식객 (12세) |
| 5관 궁녀 (12세) / 색,계 (18세) |
| 6관 히어로 (12세) / 블랙달리아 (18세) |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